



부활초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님 부활 대축일 피스키 성야

- 제1독서** 창세 1,1-2,2 또는 1,1,26-31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창세 22,1-18 또는 22,1-2,9-10-13,15-18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탈출 14,15-15,1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이사 54,5-14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이사 55,1-11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바룩 3,9-15,32-4,4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에제 36,16-17-18-28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간 로마 6,3-11
복음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음 마르 16,1-7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 입답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0,34-37-43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2독서 콜로 3,1-4 또는 1코린 5,6-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20,1-9 또는 마르 16,1-7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2024년 부활담화문

교형 자매 여러분,

2024년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금년 부활절에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봄기운처럼 삶의 무미건조함을 뛰어넘고 기쁨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죽음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욕을 상실했던 그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변화됩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부활의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청원의 기도를 바칩시다. 미사성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주 미사에 참여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받고 느끼고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슬픔에 억눌렸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기쁨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의심하던 토마스 역시 부활하신 스승을 만났기에 불신의 강을 건너 갔습니다. 상처를 확인하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고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진실의 증거자로 사셨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모르는 사이 삶은 밝아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도 달라집니다. 부활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힘을 체험해야 합니다. 2024년 부활 시기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끔씩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체성사 안에 현존해 계십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임이면 그분께서는 오십니다. 가장 작은 이들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쯤 힘든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십시오. 본당 모임에선 예수님 만남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미사 때는 영성체 시간을 기다려 보십시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차원 달라진 삶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부활의 힘이며 부활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였고 함께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부활사건을 각인시켜 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처음엔 그분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포기과 체념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된 뒤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떠나신 뒤였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은 그분께서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엠마오 제자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부활사건을 수없이 듣고 읽고 묵상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엠마오 제자처럼 뜨거움을 만나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십자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능해집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 복음 24장 32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유화의 물결이 강한 탓입니다. 결과는 가난과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절제가 사라진 개인주의의 난무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부활사건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그 고통과 억울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길 때 십자가를 아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알고 받아들이면 부활은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부활은 반전입니다. 상상도 못 했던 상황들의 반전입니다. 2024년 부활 시기 다시 체험하며 만나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코로나 사태는 끝났지만 상황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31일
주님 부활 대축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은근



로만칼라와 신부님

황정식 베드로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예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사람의 영혼을 방증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정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마음도 겸손하고 깨끗할 터이고 반면에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이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을 터이니깐요.

예복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톨릭 성직자가 입고 있는 의상이 우리가 제사 때나 명절 때 입는 두루마기보다 또는 절에 중이 입는 승복보다 멋있고 품격 있어 보이는 건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기 전부터였습니다. 실제로 내가 신부님들이 입고 있는 그 의상 때문에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 성당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이 입는 예복이 '로만칼라'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신성불가침임을 나는 최근에야 알고서, 과연 그래서 그 의상이 그렇게 경건하고 품격 있게 보였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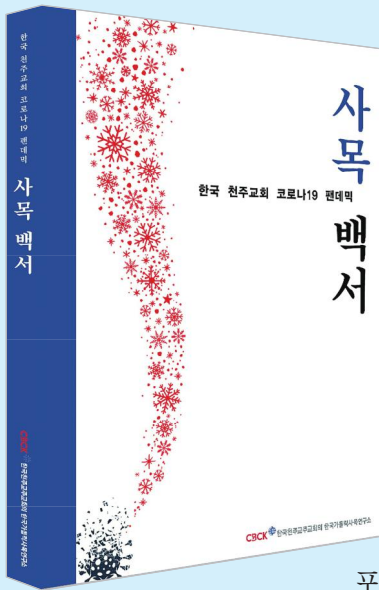
이른바 로만칼라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임을 상징하는 의상이고 그 목 부분에 두르는 흰 칼라가 그 포인트인데, 사제직을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로지 하느님에게 헌신하며 봉헌하는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상징이라 합니다. 이 얼마나 신성하고 엄격함을 나타내는 의상입니까.

로만칼라의 착용은 8세기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베네딕토 13세 교황 때인 1724년 12월 20일에 교령으로 로만칼라의 착용을 교황청의 성직자들에게만 의무화하였고, 1725년에 이르러 전 세계의 성직자들에게 로만칼라를 착용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 개혁의 하나로 성직자 예복을 간소화하면서 개량된 로만칼라를 착용토록 한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 참조).

이렇듯 로만칼라는 가톨릭교회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면면히 이어 온 전통적 의상인 사제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전통 때문인지 또는 독신인 성직자가 입는 옷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로만칼라야말로 어떤 종교 어떤 종파의 예복보다 단연코 더 신성하고 품위 있는 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신부님이 나에게 독백하듯 한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평생 독신으로 성직자가 된 이 길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심적 갈등이 있을 때엔 로만칼라를 입으면 말끔히 불안이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만약 신부님이 로만칼라 아닌 평복으로 전례를 주례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과연 성당 내 성스럽고 경건한 무드가 조성될 수 있을까요.

각설하고 우리가 아니 내가 신부님을 존중하는 것은 로만칼라의 사제복을 입고 그 어떤 신자보다도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선 이유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만칼라를 입은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려 성당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출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담당: 옥현진 대주교, 소장: 이철수 신부)는 2020년 초부터 3년 동안 미증유의 흔적을 남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그에 따른 교회의 사목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가 당면할 시대적 과제와 임무에 대해 성찰하는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를 2024년 1월 31일 자로 발간했다. 이 사목 백서는 주교회의의 2023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사목 백서는, 팬데믹 시기 한국 천주교회 통계와 설문조사를 분석한 ‘제1편 코로나19 3년의 변화’ 전국 교구와 주교회의 그리고 수도회의 팬데믹 시기 사목 자료를 분석 종합한 ‘제2편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천주교회의 대응’ 사목 주제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 ‘제3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목 전망’ 마지막으로 ‘제4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목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장인 이철수 신부는 발간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거친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강력한 전염병 덕분에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문제점들을 비로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드러난 문제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천주교회 앞에 놓인 최대 사목 과제와 비전을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자신 앞에 놓인 과제들과 전망을 실천해 나가야 할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으며, 그 도전의 문턱에서 사목 백서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46배판 • 312면 • 구입 문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02·460·75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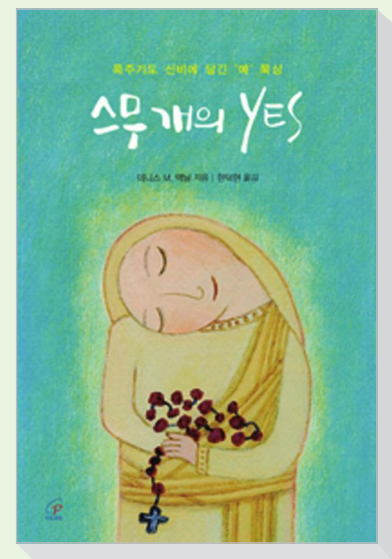
묵주기도 신비에 담긴 ‘예’ 묵상 스무 개의 YES

‘예’라고 응답하는 삶

구원을 가져오려는 하느님 계획에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응답한 것에 대한 묵상이다. 묵주기도의 모든 신비에 ‘예’라는 응답이 있었기에 하느님의 구원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주제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반세기를 사제로 살아온 저자는 묵주기도를 진지하게 바치게 되면서 묵주기도의 모든 신비 안에 ‘예’라는 응답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한다. 묵주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예’라는 응답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우리도 이 책을 통해 묵주기도가 주는 값진 선물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지은이: 데니스 M. 맥닐 신부
• 옮긴이: 한덕현 신부
• 출판: 바오로딸 출판사

교구장 서리 동정

영성생활의 집 축복식

일시: 4월 6일(토) 16:30

구병진 신부 금경축 미사

일시: 4월 7일(주일) 10:30

장소: 명서동성당

교구 사목 방문

일시: 4월 4일(목)

본당: 거창/ 안의선교/ 함양

구병진 베드로 신부 금경축 미사 및 행사

일시: 4월 7일(주일) 10:30

장소: 명서동성당

교구/본당

청소년 사목자 연수

일시: 4월 3일(수)~4일(목)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청 직원소풍

일시: 4월 5일(금)

신앙대학

일시: 4월 6일(토)~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중·고등부 전례교육

일시: 4월 6일(토)/ 장소: 교구청

청년 성서 에파타 “폐제기도에 초대합니다.”

일시: 4월 26일(금) 19: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지하 경당

청년 성서 ‘에파타’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 공부와 나눔에 관심 있는 청년

신청: <https://forms.gle/syBoKbvEen9dCSAJ7>

및 QR코드로 신청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영(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4월 7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기 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주최

하느님의 자비 주일 맞이 9일 기도

일시: 3월 29일(금)~4월 6일(토)
TV방송 매일 15:00 &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건강한 가족 공동체 부모교육

일시: 4월 7일(주일)부터 8주간, 매 주일 10:00~11:30
장소: 젊음의집/ 대상: 개인 및 주일학교 자모회
문의: 젊음의집 055·255·8295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일시: 4월 5일(금) 18:00~6일(토) 17:00 1박 2일
장소: 청주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김현우 신부, 김재덕 신부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음악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기원 및 현양을 위한 주제어, 독후감 공모전

기한: 4월 28일(주일)까지/ 대상: 청소년부, 일반부
주최 및 후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문화홍보국, 가톨릭출판사,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문의: 02·2269·0413

▶응모상세내용은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www.martyrs.or.kr 참조

박 블라시오 아빠스님과 함께하는 피정

일정: 1차~5월 1일(수) 15:00~2일(목) 14:00

2차~5월 15일(수)~16일(목) 1박 2일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집
참가비: 8만 원 [대우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접수)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3월부터 5월 29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1년) 교육 이수 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010·5230·1420,
010·8782·9520

프란치스코 청년회(유프라) 모집

모집: 상시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청년(유프라)
010·4559·5134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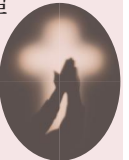
일시: 5월 20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신자
문의: 010·3191·8315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
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32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시: 4월 19일(금)~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10·8864·7067/
010·9113·706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4월 1일(월) 19:00	중앙동성당	소개 세미나	김대영 베드로 신부(전주교구)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신세계피부비노기과 피부질환 / 비노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교구 성령세미나

일시: 4월 1일(월)~5월 27일(월) 9주간
19:00~22: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전주교구 성령봉사회 담당)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원선동본당 주임)
배형진 야고보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영성 담당)
박희전 루케지오 신부(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 외방선교회)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前 전국성령 담당 신부)
김향숙 마틸다 회장(전주교구 성령봉사회장)
강철현 미카엘 신부(옥포본당 주임, 성령봉사회 담당)
박혁호 미카엘 신부(옥포본당 주임, 성령봉사회 담당)
주제: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호세 10,12)
문의: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010·5247·9900

창원산타체칠리아여성합창단원 모집

노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모두를 초대합니다.

연습일정: 매주 화요일 13:00~15:00

장소: 전용 연습실(용지로 103번지)

대상: 20~60대 여성 신자 또는 예비자
성음악, 가곡 등 다양한 합창곡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경력과 실력보다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분
(입단 오디션 없음)

활동: 정기연주회, 합창 연습, 음악봉사 등
문의: 총무 010·3177·7976/
jeanne0524@naver.com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마감: 4월 15일(월) 도착분에 한함(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교리교사 혹은 다양한 신앙 활동 참여
자 우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접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96)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 통보

교구 춘계 사제 총회



교구 춘계 사제 총회가 3월 19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각국 업무 보고 및 우니오 결산 보고, 토의 사항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인사와 당부의 말을 전하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교구 평협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이 3월 15일 교구청 성전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는 제28대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각 분과별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제28대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명단

회장: 이한규(안드레아)-명서동본당
부회장: 문병수(베드로)-사파동본당
부회장: 강정신(로사)-회원동본당
부회장: 백광열(도미니코)-가음동본당
부회장: 노갑식(아우구스티노)-사파동본당
부회장: 임영섭(빈첸시오)-옥포본당
기획·사무처장: 조정혜(로사)-완월동본당
사무국장: 강덕수(다니엘)-사파동본당
사무차장: 윤체영(마리아나)-양덕동본당
복음화분과장: 강동주(세례자요한)-남성동본당
복음화분과차장: 김문생(제네시오)-반송본당
사회복지분과장: 김현주(율리아나)-양덕동본당
사회복지분과차장: 심진섭(마리아)-완월동본당
생태환경분과장: 강석중(요한보스코)-사파동본당
생태환경분과차장: 김미진(가타리나)-사파동본당
교육분과장: 김태오(시메온)-명서동본당
교육분과차장: 허장녕(아우렐리오)-석전동본당
문화홍보분과장: 이예디나(예디나)-월영본당
문화홍보분과차장: 이진민(베르타)-중동본당
거제지구장: 윤명원(토마)-고현본당
마산지구장: 윤종수(마르코)-양덕동본당
진주지구장: 주무경(요셉)-신안동본당
창원지구장: 신병섭(치릴로)-사파동본당
감사: 박완규(토마스 아퀴나스)-남해본당
감사2: 정봉길(바오로)-반송본당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공동체

예수 성심 시녀회/ 진동 요셉의 집

진동 요셉의 집은 수녀들이 농사짓고 기도하고 피정의 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별칭도 가지고 있는데 ‘생태공동체’라고 한다. ‘생태’라는 말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예전에 비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많은 분들이 ‘생태’라는 말을 하면 환경보호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환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생태’는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보통 신자들이 생각하는 수도자는 본당이나 병원,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수녀님들을 떠올리지만 우리처럼 농사짓는 수녀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농사도 그냥 농사가 아니라 예전의 방식으로, 웬만하면 손으로 경작하고 화학비료는 일체 쓰지 않고 농약도 뿌리지 않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농사일을 아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농사짓느냐고 한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별칭인 생태공동체를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택한 방식이다.

생태공동체인 진동 요셉의 집의 하루를 소개해 보면 어렵פות이 ‘생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지면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소개해 보겠다.

요셉의 집에는 6명의 수녀와 두 마리의 개 그리고 백삼십여 마리의 닭이 함께 살고 있다. 오늘 주인공은 닭들이다. 아침 일상이 시작되면 닭장 소임을 맡은 수녀님은 닭들이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 과일 껍질을 한 번의 공정을 더 거쳐서 아주 잘게 다진 후 먹이에 섞어주고 닭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옥수물 내고 남은 멀치와 무, 다시마도 역시나 잘게 다져서 먹인다. 가을에는 밤이 지천이니 밤을 주워 삶아 껍질을 까서 곱게 다져 닭들에게 바친다. 웬만한 제사상에 올리는 정성과 비슷하다 싶다. 가끔 밭에서 고단백질인 지렁이나 벌레를 만나면 그날은 닭들 잔칫날이다.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닭들이 계란을 쑥쑥 잘 낳아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겨울이 되면 하루에 한 알도 구경 못하는 날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따른다면 인력과 자본, 시간 투자에 비해서 생산량은 턱도 없이 부족하니 허튼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생태공동체이다. 일반 양계장처럼 계란 생산을 목표로 밤낮없이 밝게 해 두고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이 아니라, 닭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알을 낳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계란을 주면 주는 대로 받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애써 먹이 주고 청소해 주고 돌봐줬는데 기껏 계란 한두 개 낳은 걸 보면 기가 찬다.



닭을 키우는 생태공동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닭’이란 피조물이 원래 지닌 본능대로 제 수명을 살고 억지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닭들이 낳을 수 있는 만큼의 계란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는 닭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제 꼴대로 살면서 핍박받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 모두도 어딘가에 살면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대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